시 론

폭로정국 '유감'

이 청명한 가을에 비자금 정국이 사람을 혼탁하게 한다. 연일 폭로가 거듭되고, 그에 대한 반박으로 날을 새운다. 정치집단들은 폭로에 따른 득실계산에 분주할 뿐, 그 폭로적 행태가 초래할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 무슨 짓을 하든 일단 이기고 보자는 야만적 경쟁앞에, 국민의 삶이 볼모로 잡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비전과 정책, 미래의 활로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생산적 논쟁은 발붙일 곳이 없다.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나의 관심은 이 경쟁을 통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에 있지 않다.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가장 확실한 감정은 문민개혁이란 말이 허구의 수사였다는 점이다. 독재와 민주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독재라 함은 모든 국가기구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기구가 독재자 1인 혹은 권력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가동되는 것이 독재의 핵심이다. 그런데 독재와 싸우면서 성립되었다는 문민정부가 해 온 짓은 독재정권의 방법을 답습해왔음이 입증되고 있다.

한 인 섭
〈서울대 법대 교수〉

모든 공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공직은 오직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때 그 권력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공직에 기반한 대다수의 활동은 개인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배타성과 독점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만큼 공직행사에는 더욱 공평성과 엄정성이 요청된다. 자기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관의 제척, 기피제도는 그런 점에서 모든 공적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관행을 보면, 공직은 마치 그 개인과 가족, 그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일상적이었다.

그 두드러진 예가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정경유착과 권력형 범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권력형 비리와는 별개로 각종 생활형 비리, 뇌물수수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장 엄정해야 할 사법권에서도, 대통령과 각 정파는 자기 편리에 따라 사면, 형집행정지와 같은 조치로 사법권을 농단한다. 이제껏 이루어진 특별사면의 실태를 보면, 자기 수하를 풀어주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사면권을 행사해 왔음이 여실히 보인다. 대통령도 여야후보도 그 점에서 한치도 다를 바 없다.

독재시대에 권력의 도구로 지탄받던 기관들의 잘못된 관행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음이 이번의 비자금사태에서 분명해졌다. 정보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계좌들이 돌아다닌다. 정치적 반대자나 잠재적 반대자들을 겁주기 위한 각종 '파일'을 만드는데도 열심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공직자들이 국리민복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위한 공작에 종사했음이 입증된 것이다.

국가공권력의 사유화는 국가를 군주의 사유물시하는 왕조시대의 산물이다. 독재시대가 끝났다는 지금에도 권력집단은 공권력을 제 주머니속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전혀 버리지 않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적 치부나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국리민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권력의 사유화 안된다

정보기관은 반대파의 비리를 수집하는데 드는 노력을 국가안전과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을 개인의 계좌를 뒷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의 투명성과 경제효율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성과 균형성을 가진 수사권행사의 전범을 창출해야 한다. 어떤 대통령, 어떤 정파도 정보의 돈과 사정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들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개별 국가기관들의 노력이 합쳐져 보다 바르고 강한 21세기 신국가를 꿈이라도 꿀 수 있을 것이다.

열린마당

대선후보 교계행사 참석

최근 교계가 주최하는 중·대형 행사장에는 어김없이 대선후보 혹은 정당 불자의원이 참석, 축사를 한다. 이른바 '불교표잡기'의 분주한 행보다. 어떤 행사에서는 대선후보나 그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축사가 서너차례씩 이어져 마치 정치행사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까지 자아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분주히 불교계를 찾아드는 정치인들을 보는 교계의 시각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않다. 교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 10일 봉행된 통도사 개산대제에 참석한 김대중, 주양자, 조순씨.

지선 〈백양사 주지〉

관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지도부들이 큰스님을 예방하고 각종 불교행사에 참석하는 빈도가 부쩍늘고 있다고 한다. 큰스님은 교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어른이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평소에 큰스님을 찾아 가르침을 통해 정치철학 등을 배워야 마땅하다. 그러나 평소에는 안중에도 없다가 선거때만 되면 발걸음이 잦아지는 것은 한마디로 속보이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진정으로 불교를 위한다면 불교현안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불교계는 각 정당 지도부들이 불교행사에 참석 승가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으히려 교계는 불법선거 감시자로 나서야함이 마땅하다.

지성 〈태고종 총무부장〉

대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불교계 방문이 잦아지는 것은 우리 국민정서를 이루는 근간이 불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심을 잡지 않고서는 당선되기 어렵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불교계로서는 이들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두 측면이 공존한다.

평소 절찾아 '정치철학' 배우길
종교편향 방지 기회 삼았으면
절은 "정치마당 아니다" 초청반대

후보들의 요청에 의한 불교계 방문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로부터 불교에 대한 견해를 듣고, 또 불교계의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그동안 불교가 받았던 종교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방문을 요청, 이를 이용하려는 행위는 마땅히 지양해야 한다.

종호 〈인천 능인사 주지〉

대선후보들의 불교행사 참여는 그야말로 표를 의식한 '얼굴내밀기'에 지나지 않음을 그동안의 많은 선례를 통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종교관에 의해 종교정책이 좌우됨으로써 파행된 문제들이 그 대표적 예이다.

타종교에 비해 특히 대선후보들의 불교행사 참여가 높은 이유를 다시한번 되짚어 보고, 불교방송·불교TV 등 방송사를 통한 종교정책 토론회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정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재일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대선후보들이 사찰을 방문해 축사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 불교를 위한 선거공약과 정치적 대안없이 인사치레로 형식상 불자들에게 축사하는 것은 불교를 허술하게 보는 행동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사찰측도 대선후보들의 확고한 종교관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초청은 물론 방문도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단호한 불자들의 의지표명만이 대권후보들에게 불교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행동이라 생각된다. 선거전후의 종교정책이 한결같기 위해선 맹목적 사찰 방문만을 환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야 하는가를 선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동혼 〈경불련 운영위원장〉

정치인이 종교지도자를 찾을 때는 혼란한 정국을 어떻게 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혜를 겸허히 구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사찰에 잠깐 머물며 스님들과 인사하고 행사에 참여해 축사 등을 한다. 이것이 TV와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볼 때마다 불교행사가 정치마당이 되는 것은 아닌지 민망스럽다.

불교가 정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의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여전히 불교는 우리사회의 정신과 문화의 정점에 있다. 우리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가 세워야 한다.

이상번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교계 각 행사 주최측이 위상이나 격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정치인들을 초청하고, 스님 또는 단체장들이 불교행사에서 특정 대선후보 지지발언을 하는 것 등은 종교인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일이다.

불교계가 자정해 대선후보들을 초청하고, 축사·내빈소개 등의 순서를 마련하는 것은 순수한 입장을 견지해야할 종교행사가 자칫 정치패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옳지 못하다.

고영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불교표밭 공략을 위한 대선주자들의 행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주최측에서 자청해 정치인을 초청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대선후보들의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 주최측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다.

만약 정치인 초청이 불가피하다면 형평성 있는 정치인 대우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치논리로써 어느 후보에게는 갖가지 편의와 시간을 할애하면서 누구는 내빈 소개에 그친다던지, 아예 무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종교인의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대선후보 교계방문 일지

▲9월28일=조순 부산 사직체육관 대행스님 초청대법회 참석
▲9월30일=이인제 통도사 월하스님 예방
▲10월1일=김종필 통도사 월하스님 예방 및 부산 천태종 삼광사 방문
▲10월5일=이회창 통도사 월하스님 예방 / 김대중 동화사 무공스님 방문
▲10월7일=이회창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예방
▲10월10일=김대중 조순 이한동 주양자 통도사 개산대제 참석
▲10월12일=이회창 부산 을숙도연등대법회 참석
▲10월13일=김대중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예방
▲10월15일=이인제 월주스님 예방

대선후보 '불심잡기' 현황

최근 대선후보들의 불교계 행사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않고 행사식순에 축사등 기타 형태로 인사를 하기까지 한다. 대선후보들의 '불심 잡기'와 불교계의 '행사 광내기'가 손발이 맞아 대선후보 '얼굴 내밀기'가 줄을 잇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종정및 총무원장급 스님을 예방하는 이외에는 대부분 교계의 초청에 의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교계의 무분별한 대선후보 초청이 자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계 '행사 빛내기' 초청에 발길 분주
행사 무게따라 후보·불자의원 분담

각 후보들은 불교계의 초청장과 주요행사를 점검, 일정이 겹치거나 비중이 크지 않은 행사일 경우 불자의원들을 대신 참석시키는 등 행사규모와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 일정을 잡고 있다. 또한 각 후보들은 선거법으로 인해 黨불자회의 회비로 보시금을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비로 보시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 행사 일정은 대부분 각후보 비서실에서 잡고 있지만 법회참석시 연설문과 불교정책분야의 제시는 정책실 또는 직능국, 黨불자회가 맡고 있다.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의 경우 불교관련 일정은 총재비서실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불교현안 파악과 법회 연설문 작성, 행정 지원 등은 직능국 종교팀에서 맡고 있다. 불교계 주요행사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불자인 이한동대표와 당불자회 회장인 함종한의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의 불교계 일정은 당불자회인 연등회(회장 박상규의원)에서 짜고 있다. 법회 연설문은 연등회 부회장 조성준의원이 초안을 작성한다. 연등회 소속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불교계 행사를 챙기고 있다.

김종필 자민련 후보측은 일정과 법회 연설문을 종교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행사가 겹칠 경우는 주양자 부총재 등 黨불자회(회장 박철언의원) 소속의원 8명과 지역구 의원이 대신 참석하고 있다.

조순 민주당 후보의 불교관련 일정과 연설문은 대부분 총재비서실에서 맡고 있다. 다만 중요 불교정책과 관련될 경우 정책실 박원모 전문위원이 문안을 작성한다.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의 경우 일정과 연설문은 주로 반영준 종교담당특보(성신여대 교수)가 맡지만 주요사안의 경우 정책실에서 초안을 준비한다.

김재경 기자

소 향 원

자비동산 소향원은 노인복지시설로서 무료양로원입니다. 정월곡(관음불교회관장)님의 발원으로 설립된 저희 소향원은 1996년 11월 20일 (화순군 96-3) 개원 하였으며 호남지역 시설평가에서 제일 쾌적하고 안락하며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입소노인들의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입 소 안 내 ●

■ 입소자격 : 만65세 이상 남·여 생활보호대상자
■ 구비서류 : 주지스님 추천서

● 후 원 회 안 내 ●

여러분의 따스한 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후원회 가입문의 :
(0612)73-6406

사회복지법인 **소 향 원**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495-1
전화 (0612)73-6406
FAX (0612)73-8767

법화경 특강(광주)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광주 전남지역 불교인구의 저변확대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화삼부경**〉 무료특강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0월 24일 오후 2시~4시
2. 장소 : 광주 안보회관 5층 대강당
3. 동참 : 불교정법에 관심있는 모든 분
4. 혜택 : 참석자 선착순 200명에는 법화삼부경 (싯가 3만원) 1권씩과 佛字·액자용 1점씩을 드립니다.

■ 연 락 처 ■
영광 진제암 : 0686-53-9121
011-621-6966 · 015-638-6966

UN · IAEWP · KOREA MONK ACADEMY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 광 영 (공덕)
(053)952-8711 · 017-501-8711

南傳大藏經

南傳大藏經은 佛教 최초의 경전이자 부처님의 親說에 가장 가까운 經典으로서, 南方佛教, 즉 인도, 네팔, 스리랑카, 버마, 태국 등지에 전래된 경전입니다. 佛教經典은 최초로 인도의 고대 언어인 팔리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南傳大藏經은 바로 팔리어로 이루어진 최초의 佛典의 日本語譯版입니다.
南傳大藏經의 내용은 기타 대장경과는 수록경전이나 내용이 전혀 다를 뿐더러 중복되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전인 「숫타니파타」의 경우는 기타 경전에는 없고 이 남전대장경에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珠玉같은 경전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0년만에 再刊行되오니 이 기회에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① 南傳大藏經 全70券(목록 1권 별도)
② 하드카바 포크로스 최고급 양장, 80미색모조 사용
③ 예약가 : _____ 출간후 정가 : _____
④ 계약금(신청금) : 300,000원
⑤ 출간일 : 1997년 12월 5일 이전
⑥ 출간후에는 가격 대폭인상

· 국민은행 : 006-01-0713-358 정회운
· 농 협 : 053-01-193286 정회운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 : 735-7202, 738-6270